

국내 계획 공동체마을의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sidents Participation of Intentional Community in Korea

조정현* 곽유미* 이동숙* 최정신**
Cho, Jeonghyun Kwak, Yumi Lee, DongSook Choi, Jung Shin

Abstract

In Korea, a movement for founding a intentional community village is becoming popular to improve the individualistic living environment, and to create a humanistic lifestyle.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whether its management is successful or not because the intentional community village such as an eco-village is still in an experimental stage in Korea. In this study, a intentional community village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help residents build an effective cooperation system and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various communal activities. Detailed cases were studied including a formation process and methods of residents' participation. Through the case study, actual conditions of the community villages and several problems were studi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order to sustain the community village, it is crucial to encourage the community spirit among the residents. We also find that developing various community facilities and programs can easily raise a sense of familial warmth among the residents. Above all, proactive participation in the communal activities is the most importan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architectural design which can be used as a guiding principle for foundation of the intentional community village. In addition, concrete and systematic solutions including communal activity programs, residents education, and self management regulations must be discussed.

키워드: 계획 공동체, 주민 참여, 공동활동, 공동생활시설

Keywords: Intentional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Common Activities, Common House

1. 서론

1. 연구의 배경

계획공동체는 친환경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공동체, 코하우징과 같은 커뮤니티 중심의 공동체, 종교적인 공동체와 같은 영성 중심의 공동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전호상, 2007). 과거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은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을 이루면서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현재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내에서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기위해 계획공동체 마을 만들기 운동이 친환경 마을, 동호인 마을 등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운동은 마을을 설립하고 그 마을에 입주하여 살기까지 주민의 모임이 많이 요구되므로 그 동안 주민 간에 자연스러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계획공동체마을이 시작단계이고 마을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마을도 구체적인 경험과 평가를 기반으로 설립되었다기보다는 단지 이상만을 가지고 출발한 예가 많아서 그 운영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례

는 드물다. 이러한 계획공동체 마을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친밀감을 높이는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공동 활동 프로그램 구성과 공동생활시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계획공동체마을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건축적 디자인 방안이나 공동활동 프로그램, 공동생활시설, 주민교육, 마을의 자치 규약 등에 대한 연구도 불충분하여 이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계획공동체인 친환경마을, 동호인마을과 종교 공동체마을을 중심으로 실제 계획공동체마을의 설립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는 것이다. 특히 설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법과 과정, 입주 후 공동활동의 종류와 자치규약, 그리고 공동생활시설과 그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앞으로의 국내 계획공동체마을의 설립과 유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계획공동체 마을의 설립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폭넓고 전문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사회에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주거생활을 효과적으로 보급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학과 주거학 전공 박사과정

**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 주거학 전공 교수

II. 연구방법

1. 연구 범위

계획 공동체마을을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내용 중에는 공동체 의식의 생성, 대지 확보, 재정과 소유권, 단지와 건물의 디자인, 공동생활의 내용과 참여, 공동생활의 규칙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 중에서도 성공적인 계획공동체 마을의 운영과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민참여의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인 주민참여의 방법에는 마을 설립과정에서의 참여와 마을이 조성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동활동에의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로 수행되었다. 우선 문헌고찰(오영식,2002; 한주희,2005; 홍서정,2005; 한민정,2005; 최정신,2006; 전호상,2007; 박유미 외 2인, 2007)을 통해서 면담의 내용이 가능한 한 통일되고 객관성을 가지도록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다음에 실제의 대상 주거단지를 선정하여 방문 허락을 받은 후 작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보다 자세한 구술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면접자와의 인터뷰 시 녹음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마을의 전반적인 특성, 마을 설립과 계획 시에 주민들의 참여 방법, 그리고 입주 후 주민들의 공동 활동의 내용과 참여 정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 주거단지는 현재 입주가 되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계획공동체 마을(친환경마을, 동호인마을, 이념 공동체 등)이다. 조사대상 마을은 선행연구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비교적 공동체마을로 잘 알려진 마을 7개로, 거북마을, 산안마을, 민들레마을, 안솔기 마을, 간디숲속마을, 두레마을, 청미래마을이다. 분포지역은 모두 농촌이며 조사기간은 2008년 2월 22일~28일이다.

표1. 심층면접 조사대상 단지

대상 단지	조사 일시	위치	응답자	
A1	거북 마을	2008. 2. 22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주민
A2	안솔기 마을	2008. 2. 27	경남 산청군 산청읍	대표
A3	간디숲속마을	2008. 2. 28	경남 산청군 신안면	전 대표
A4	청미래 마을	2008. 2. 28	경남 함양군 백전면	총무
B1	산안 마을	2008. 2. 25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대표
B2	민들레 마을	2008. 2. 27	경남 산청군 신안면	기술소장
B3	두레 마을	2008. 2. 28	경남 함양군 함양읍	영농부장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 주거단지의 일반적인 특성

1) 조사대상 주거단지의 개요

본 조사대상인 7개 마을의 개요는 아래의 표2와 같다. 이들 마을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공통적인 필요에 의해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 하려는 주생활 공동체와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강한 의식공유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이념 공동체로 그 성격을 나누어볼 수 있겠다. 거북 마을, 안솔기 마을, 간디숲속 마을, 청미래 마을의 경우 주생활 공동체로 산안 마을, 민들레 마을, 두레 마을의 경우에는 이념 공동체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2. 조사대상 단지의 개요

대상 단지	설립목적 및 성격	계획 시기	입주 시기	주민 구성	재정과 소유권	특성
		계획-입주 기간	입주 후 기간			
A1	동호인 공동체	1996년 2년	1998년 10년	직장동료를 중심으로	개별소득 개별소유	주생활공동체
A2	대안교육+생태 공동체	1997년 4년	2001년 7년			
A3	대안교육+생태 공동체	2004년 3년	2007년 1년	간디중학교를 중심으로	개별소득 개별소유	
A4	대안교육+귀촌 귀농 공동체	2001년 2년	2003년 5년	녹색대학을 중심으로	개별소득 건물개별소유 대지공동소유	
B1	철학적 이념 공동체	1966년 18년	1984년 24년	야마기시즘을 중심으로	공동생산 공동소유	이념공동체
B2	종교적 공동체	1990년 6년	1996년 12년	김진수목사님, 민들레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생산 공동소유	
B3	종교적 공동체	1980년 24년	2004년 4년	김진호, 김호열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공동생산 공동소유	

주생활 공동체의 경우 특정 집단의 모임(직장동료, 대안학교, 친환경생활, 귀촌귀농 등)과 연계되어 구성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대안학교와 마을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경우보다는 초기 마을 형성단계에서만 연관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완전한 의미의 친환경마을은 아니었으나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마을 구성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념 공동체의 경우 종교나 철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선각자적이고 희생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역사가 오래된 경우가 많으며 모두 무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공동생산, 공동소유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조사대상 주거단지의 물리적 환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 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생활 공동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체 대지를 개개인이 나누어 분담하고 개별필지를 가지고 개인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한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

는 공동체이지만 개별성을 인정하고 마을의 기초공동 시설 (도로, 공동주차장, 상하수도, 전기) 이외의 공동 활동을 위한 시설이 없는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표3. 주생활 공동체 마을의 물리적 환경

대상 단지	거북 마을	안솔기 마을		간디숲속 마을	청미래 마을	
대지	면적	3630m ² (1100평)	141900m ² (43000평)		59400m ² (18000평)	115500m ² (35000평)
	소유형태	개별필지 개별소유	개별 소유	공동 소유	개별필지 개별소유	공동소유
개별주택	비용	5710만원	2000만원		초기 평당15만원 현재 평당20만원	2000만원
	세대수	5세대 중 4세대입주	19세대 중 18세대입주	40세대 중 17세대입주	26세대 중 9세대입주	
개별주택	개별필지 면적	693- 726m ²	594- 792m ²	660m ² - 1650m ²	평균 660m ² 정도 할당	
	건축면적	109-158m ²	393-198m ²	99m ² 이하	59-99m ²	
	m ² 당 건축비	76만원	76 -106만원	61-121 만원	30-91만원	
	주택유형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주택형태	스틸 하우스	목조, 흙집, 한옥	목조, 흙집, 벚단집, 한옥	목조, 흙집, 한옥	
	공급방식	분양형 (개인소유)	분양형 (개인소유)	분양형 (개인소유)	분양형 (개인소유)	
제한사항	유	유	유	유		
친환경요소 도입 정도	하	중상	중하	중하		
공동생활 시설	무	무	무	무		

표4. 주생활 공동체 마을의 물리적 환경

대상 단지	산안 마을	민들레 마을	두레 마을	
대지	면적	165000m ² (50000평)	-	429000m ² (130000평)
	소유형태	공동소유	공동소유	공동소유
건물	건물 수	생산시설과 주거지 7동 성인숙소 식당,사무동 회의실,도서실 목욕탕 의류실 어린이집 로비(공동거실)	공동생활시설2채 개인생활공간5채 학교 3채	숙소6채 방갈로 10채 사무실1동 강당2동 작업실2동 야외 강의장 온실 1동 창고5개
	건축면적	각 동당 165-198m ² 내외	공동생활시설 165m ² 개인생활공간 396m ² 학교 198m ²	각 동당 165m ² 내외
	주택유형 및 형태	단층의 벽돌 또는 콘크리트 건물	기존주택의 매입 2층의 벽돌건물 벚단건물	목조건물
	공급방식	공동소유	공동소유 (1채는 임대)	공동소유
친환경요소 도입 정도	생산시설 중상 주거동 하	중상	생산시설 중상 주거동 중하	
공동생활 시설	유	유	유	

반면 이념 공동체의 경우 마을의 대지나 그에 속한 건물이 모두 공동소유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동생활을 위한

공간과 개인생활을 위한 공간의 명확한 구분이 모호하며 공동 활동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있어 공동의 결속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순차적으로 늘어나거나 증축한 경우가 많아서 계획적이고 의도된 건축설계에 의한 물리적 환경 구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2. 마을 계획 및 설립 시 주민 참여 방법과 과정

1) 마을계획 시 주민참여방법

주생활공동체 마을은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위해 우수마을 견학, 세미나 및 학습회에 참여하였다. 그 중 거북마을의 경우는 전문가의 교육을 받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스크랩, 전시장, 박람회, 주민들끼리 함께 우수 마을을 견 등 자신들의 마을 계획에 적극적 참여하였다.

개별주택, 마스터 플랜 계획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시공사에서 일괄도급해서 제공된 경우 보다 본인들이 참여하여 계획·설계하여 공사비 측면에서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5. 마을 계획 시 주생활 공동체 마을의 주민참여방법

대상 단지	거북 마을	안솔기 마을	간디숲속 마을	청미래 마을
마스터플랜 계획 시 주민참여 정도	주민계획	전문가계획 (중간에 주민들과논 의)	전문가계획 (간디학교재 단)	주민계획
주민참여 홍보방법	간담회	간담회, 신문광고	인터넷, 학부모간담 회	간담회
전문가 교육여부	무	유 (녹색연합 등)	유	유
사용된 교육방법	주민들이 관련자료스 크랩, 우수마을견 학 전시장 등을 다님	우수마을견 학(대표자만) 학교소식지 발행 세미나 등	전통마을견 학, 세미나, 외부강의	우수마을견 학, 세미나 및 학습회, 설문조사 등
개별주택 설계방식	건축가설계+ 주민요구반 영	주민설계+약 간의전문가 도움	건축가설계+ 주민설계	주민설계+건 축가,전문가 도움
개별대지 선정방법	자발적인 조정	선착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초반부: 제비뽑기 후반부: 선착순
계획 시 주민모임 횟수	매일	월1회	월1회	주1회
마을이름 선정방법	연장자의 제안(땅의 모양에서 나옴)	전통적인 마을 명칭사용(주 민의논을 통해)	주민회의에 서 공모	주민회의에 서 공모
마을구성의 전반적인 진행과정	주민 주도	주민 주도	전문가 주도(약간의 주민참여)	주민 주도

이념 공동체의 경우는 생활하면서 필요에 의해 건물이 증축되거나 리모델링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을 하고 있었다. 주민홍보 방법은 인터넷이나 공고를 통해서라 보다는 공동체와 관련된 모임을 통해 그 뜻과

이념이 같으면 생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6. 마을 계획 시 이념 공동체 마을의 주민참여방법

대상 단지	산안 마을	민들레 마을	두레 마을
마스터플랜 계획 시 주민참여 정도	직접참여 (주민)	직접참여 (주민)	간접참여 (주민+전문가)
주민참여 홍보방법	야마기시 연찬을 통해	-	인터넷, 기독교단체의 소개로
전문가교육 여부	-	무	유
사용된 교육방법	-	1만명 우수마을 견학, 세미나 및 학습회	우수마을 견학, 세미나 및 학습회, 행사를 통한 교육방법
개별주택 설계방식		주민+전문가	주민설계
개별대지 선정방법	-	진주근처에서 떠돌이 생활하다 빈 땅이 있어 찾아옴	기증받은
계획 시 주민모임 횟수	-	주1회	월1회
마을이름 선정방법	송명규 교수에 의해	공모	전통적인 의미 + 김진호 목사님
마을구성의 전반적인 진행과정	주민 주도	주민 주도	지도자나 대표기구 중심

2) 주민참여의 조직체계

주생활 공동체 마을의 경우 마을 회의나 행사, 재정 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와 운영위원회가 거북마을을 제외하고 모두 있었다. 거북마을의 경우는 가구 수가 현재 4가구만 입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의 역할보다 주민들의 스스로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지도자 결정방법은 투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임도 가능하였다. 네 마을 모두 대화로서 의사를 조절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발생 시 될 수 있는 한 만장일치제로 가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표7. 주생활 공동체 마을의 주민참여의 조직체계

대상 단지	거북 마을	안솔기 마을	간디숲속 마을	청미래 마을
지도자유무	무	유	유	유
지도자역할	-	주민회의, 행사 등을 지도	총장, 운영위원회(5명): 간디학교 재단과의 협의	대표:마을회의 주도 총무: 재정담당
지도자결정 방법	-	토의결정	1년에 한번(연임가능)	1년에 한번씩 돌아감(연임가능)
의사결정방법	만장일치	만장일치	만장일치	다수결
의사표시방법	손을들어서 (대화로)	대화로	대화로	대화로

이념 공동체 또한 지도자가 모두 있어 마을의 전체방향과 목표설정, 주민들 간의 의사분쟁을 조정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산안 마을의 경우는 마을의 지도자의 대

표라기보다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의 역할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의사결정의 방법에 있어서도 큰일의 경우에는 만장일치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소소한 일은 담당자, 운영회에서 결정하고 있었다.

표8. 이념 공동체 마을의 주민참여의 조직체계

대상 단지	산안 마을	민들레 마을	두레 마을
지도자유무	유(명목상)	유	유
지도자역할	-	재정, 목표 설정, 의사분쟁 조정	-
지도자 결정	연장자	정회원 그룹	투표
의사결정방법	만장일치	만장일치	다수결
의사표시방법	대화	대화	거수

3. 마을 입주 후 주민 참여 방법과 과정

1) 주민자치관리

표9. 주생활 공동체 마을의 주민자치 관리

대상 단지	거북 마을	안솔기 마을	간디숲속 마을	청미래 마을
자치관리 규약	무	유	무 (계획 중)	무
세대 당 공동관리 비용	월 2만원 현재는 모인 돈으로 운영	월 1만원 경육고 월 50만원	월 1만원	초기 공동마을 조성비 250만원
사용처	공동전기세 정화조관리 등기비용의 일부지원	회식, 공동 활동 행사비	상수도비용, 공동 활동 행사비	마을 운영, 도로, 개별대지 기본 터 담기, 공동수도전기
공동자산	정화시설, 공동주차장	34000평의 빈대지	도로, 주차장, 길주변의 30%녹지	마을 대지
공동관리 참여정도	-	대청소, 나무심기 등	-	대청소, 풀베기 등

주생활 공동체 마을의 경우 기본적인 정도의 세대 당 공동관리비 및 공동생활 운영비가 있었으며 이는 마을의 공동자산에 대한 관리와 공동 활동에 대한 행사비 정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공동관리 역시 주민자치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다지 참여정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표10. 이념 공동체 마을의 주민자치 관리

대상 단지	산안 마을	민들레 마을	두레 마을
자치관리 규약	무	유	무
자치규약 내용	자발적 자유의지에 맡김	구체적인 규약내용	공동체의 다짐-권고사항
공동관리 참여정도	필요시 언제나	필요시 언제나	필요시 언제나

이념 공동체 마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소유 개념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공동관리비 및 공동생활운영비도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므로 개별적인 지출은 없었

으며 마을의 자산역시 모든 것이 공동자산이므로 공동 관리에 대한 참여도 생활공동체 마을의 경우보다 참여도가 높았다.

2) 공동 활동

주생활공동체 마을의 공동 활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각 마을의 공동 활동의 활성화 정도와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북마을의 경우, 적은세대로 구성되어있고 마을계획 시 주민참여가 높았으며 다른 마을에 비해 오랜 시간동안 함께 생활하여 비교적 공동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었다, 안솔기 마을의 경우도 마을의 설립 및 계획 시 주민참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마을로 공동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세대가 몇 세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동 활동의 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간디숲속마을의 경우 마을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입주한 세대가 절반정도에 미치지 못하여 아직은 공동 활동이 활성화 되어있지는 않았으나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

표11. 주생활 공동체 마을의 공동 활동

대상 단지	거북 마을	안솔기 마을	간디숲속 마을	청미래 마을
주민회의	월1회	월1회	월1회	월1회
차모임	부정기적	부정기적 개별적 소모임	부정기적 개별적 소모임	부정기적 개별적 소모임
식사모임	방학 때 자주	부정기적 개별적 소모임	-	부정기적 개별적 소모임
취미활동	초창기에는 했었음 지금은 안하고 있음	부정기적 퀵트, 염색 여성들위주	부정기적 개별적 소모임	-
운동활동	-	부정기적 조기축구회	-	-
원예활동	-	-	-	-
교육모임	남아-대금 여아-소금	-	-	-
종교모임	-	부정기적 성경공부모임 일부여성들 위주로	-	-
봉사모임	-	-	-	-
공동축제	연 1-2회 연말신년모임 아이들 음악발표회	연 4-5회 대보름행사 음악회, 추수감사, 설 및 송년회, 운동회	연 1회 대보름 행사, 명정행사	연 1-2회 망년회 그 외 기존마을 면단위 행사에 참여
공동생산	-	경육고 두 달에 일주일	-	-
공동활동의 장소	집집마다 돌아가며	경육고 한의원 사랑채에서	집집마다 돌아가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공동활동의 장소의 요구도	공도의 온돌방이나 황도방 필요	공동의 생활시설이 필요	기존마을에서 독립하여 군에서 마을회관을 지원받으려 노력 중 임	아직은 필요성 없음

아야 할 것이다. 청미래 마을의 경우에도 역시입주한 세대가 너무 적어 아직은 활성화된 공동 활동을 이루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특히 이들의 공동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없고 공동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어떠한 제제사항 없이 전적인 자율에 의지하고 있으나 그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지 못하여 지속적이고 활발한 공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2. 이념 공동체 마을의 공동 활동

대상 단지	산안 마을	민들레 마을	두레 마을
주민회의	연 2회 각 부문 회의	주 1회	매일아침 (화-토요일) 운영위원회의 매년 초
차 모임	-	매우 자주	-
식사모임	일 2회 월 1회 전체 회식	일 2회	일 3회
취미활동	-	오카리나, 피아노, 바느질(공방)	-
운동활동	-	주일 축구	-
원예활동	-	봄철에	-
교육모임	학육부에서 어린이집 운영	민들레 학교	매주 수요일 저녁 독서토론회, 공동체 교육, 친환경농법교육
종교모임	-	주 1회	매주 금요일 중보기도회 일주에 한번 성경교육
봉사모임	-	봉사가 필요한 주민이 있을 경우 언제나	-
공동축제 및 행사	계절별 축제 명절 행사	일년에 4-5번 개원기념일(4월5일) 추수감사, 크리스마스, 학교행사	-
공동생산	야마기시 유정란 생산 발농사(수입원은 아니고 주민 먹거리)	발농사	허브비누, 샴푸, 약초즙 생산
행사 및 프로그램	야마기시즈 특별 강습연찬회 프로그램	공동체 체험을 원하시는 사람에게 개방	마을 내 행사 여름 겨울 수련회 및 프로그램 행사
공동활동의 장소	개인 숙소를 빼고는 모두 공동활동 공간 주로 식당 또는 회의실	공동생활시설 본관	새우리집(센터)
공동활동 장소의 요구도	규모가 작고 시설이 낙후하여 마을 중간으로 이전 계획 중	규모가 작아 더 넓힐 계획	증축하여 적절함

이념 공동체 마을의 공동 활동에 대한 내용은 위의 표 8과 같다. 이념 공동체 마을의 공동 활동의 활성화 정도와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생활 공동체마을 보다 마을 내 공동 활동의 종류도 다양하였고 그 참여 정도도 매우 높았다. 이는 공동체 의식이 종교나 철학으로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 공동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어떠한 제제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참여도가 매우 높았고 그들의 생활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생활시설이 아주 잘 계획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마련되어 있어 물리적인 환경 또한 활발한 공동 활동을 가능케 하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산안 마을의 경우에는 주거생활시설 공간이 숙소 동만 개인적 공간으로 식사 공간, 의류 공간, 목욕위생 공간, 회의실 및 독서실, 거실 등이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고 있었다. 두레 공동체의 경우에는 물리적 환경의 구성에 주민 중 전문가가 있어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설계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규모역시 다른 마을에 비해 넓었다. 또한 공동체 마을에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전문적이 지식에 대한 끈임 없는 주민 교육이 역시 공동 활동의 참여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여건으로 작용하였다. 대안 기술에 대한 교육, 친환경농법에 대한 영농 교육, 종교적 혹은 철학적 이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등을 주민들이 직접 함으로써 더욱더 공동체 생활에 대한 기틀을 잘 마련해 가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주민 간의 더 많은 협동체제를 이루며 공동활동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계획공동체 마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내에 이와 가장 비슷한 형태로 생겨나고 있는 친환경마을, 동호인 마을, 종교 혹은 철학적 이념 공동체를 조사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공동체 마을의 성격상 주생활 공동체마을과 이념 공동체 마을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주생활 공동체 마을의 특징으로는 마을의 설립초기 단계에서는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반면 지속적인 연계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주민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프로세스 및 교육이 필요하며 서로의 의사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통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요소로 사료된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마을 설립 시에 기초적인 시설이 외에 공동으로 투자해야하는 공동생활 시설에 대한 이해가 없어 차후로 미루게 됨으로써 결국은 공동활동의 활성화에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반면 이념 공동체 마을의 특징으로는 종교나 철학적 이념으로 시작한 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나 협력체계는 잘 이루어지는 편이었다. 개인의 재산이나 소유권 문제에서도 초월하였으므로 주생활공동체 마을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없었으나 힘들게 시작한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계나 시설이 확충되지 못하고 필요시에 조금씩 보충해 나가는 형식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시설이 열악하거나 배치상에 문제가 있어 새로운 계획이나 증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현재의 계획공동체 마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

다. 각 공동체 마을은 그 성격에 따라 매우 다른 성향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중요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강도 높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물리적인 설계와 디자인, 주민 교육, 공동 활동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동체 마을 조성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김상희(2001), 거주자 참가형 주택개발을 위한 주의식 조사연구, 경상남도 창원시와 마산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2(2)
2. 김수중 외 5인(2005),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학사
3. 박유미, 최정신·곽인숙(2007), 주생활공동체에 따른 코하우징 선호도,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8(4)
4. 녹색연합(2000), 경남 산청군 신안면 “간디생태마을 기본계획”
5. 오영식(2002), 이용자 참여에 의한 마을 만들기-태백시 상장동 학마을 사례,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윤정혜(2002), 세계 공유집합주택의 사례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이경희(2000), 공동주택 개발에 있어서 서구의 협동주택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논문집 38(2)
8. 이영희 외 (1983), 공동체문화 제1집-더불어사는 삶의 터전, 도서출판 공동체
9. 전호상(2007), 계획공동체 마을의 공간구성,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0. 주거학 연구회 (2000), 더불어 사는 이웃, 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11. 주거학 연구회 (2004), 친환경주거-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실천, 발언
12. 최정신(2006), 덴마크와 스웨덴의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만족도 비교, 한국주거학회지 6(6)
13. 최정신, 이연 폴슨(2006),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의 계획과 적용, 집문당
14. 한민정(2005), 코하우징 개념을 적용한 도시근교 주거단지의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 한주희(2005), 맞벌이 가족을 위한 한국형 코하우징 계획안,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홍서정(2005), 한국 농촌형 코하우징의 계획,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